

 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 자 료			 대한민국 대안형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11.23(화)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담 당 자	허남혁 사무관(02-2100-2695)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김 은 조(02-3145-7700)		김철호 부국장(02-3145-7702)

제 목 : 한겨레의 11.23.일자“ 셀트리온 분식회계 조사 3년
금융당국, 제재안 논의 돌입”기사에 대한 입장

1. 기사 내용

- 한겨레는 “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감리위원회의 심의
착수로 3년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”라고 언급하면서,
 - “3대 쟁점으로 ①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
의약품(재고자산)의 가치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, ②셀트리
온이 계열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한
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 적정한지, ③감리가 3년이나 걸린
것이 이례적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
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
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행정관리청 콜센터
--	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